

방산업체 방문단 영국, 이탈리아, 파키스탄 방문

— 방산물자 수출시장 개척 및 확대 위한 마케팅 활동



민간

차원의 방산기술협력선을 모색하고 방산물자 수출 시장 개척 및 확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방산업체 방문단이 9월 4일부터 18일까지 영국, 이탈리아, 파키스탄의 방산업체 및 협회, 기관을 방문하고 산업시찰을 가졌다.

安秉吉 방진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安光男 장

관 군수특보, 방산업체 대표 등 13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파키스탄의 국방부 및 방산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업체간 협력 확대방안을 토의하고 유대 관계를 지속시키기로 다짐하였다. 이에 앞서 방문단중 일부는 영국에서 개최된 환보로우 에어쇼를 참관하고 이탈리아를 방문하였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Zignani 국방사무차관을 방문해 내년중 한·이 방산군수공동위 개최를 논의하였고, Alenia, Otobreda, Fiar, Agusta, Aermacci 등 방산업체를 방문해 장비구매를 전제로 우리 측 부품 도입 의사를 확인하고 민항 수송기(100석 규모)에 관해 한국과 협력하는 내용을 논의하였다.

파키스탄에서는 Mirani 국방장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생산기술과 파키스탄의 산 인건비를 접목해 중국, 중동, 동아프리카지역에 공동진출하는 내용을 논의하였다.

파키스탄은 현재 미국의 지원 중단으로 기술부족, 장비유지면에서 난관에 봉착해 있으며, 대중국, 중동, 동아프리카의 친선관계를 고려해 볼 때 검토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6차 유도무기 학술대회 성황리에 열려 ...

국방

과학연구소는 9월 12일 제4연구개발본부 주최로 기체/발사대 분야에 대한 제6차 유도무기 학술대회를 국내의 산·학·연 및 군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기체/발사대 분야 학술대회는 93년도에 이어 2번째 개최되는 학술대회로 5개 분과에서 총 6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날 환영사에서 배문한 소장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비하고 선진 각국의 유도무기개발에 필요한 핵심부품 및 핵심기술 이전통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소요되는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산·학·연 및 군의 역할분담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의 대회장인 박찬빈 본부장은 대회를 통해 “유도무기 학술대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관련 과학기술자간 기술협력증진의 장이 되고 있음을 보람되게 생각하고 있다”고 피력하였다.

산업을 대표한 대우중공업(주) 이봉희 사장은 축사를 통해 “이러한 학술대회를 통하여 유도무기 개발에 필요한 첨단 기술분야에서 방위산업체와 유관기관간의 상호협력증진 및 지원체계 구축이 강화될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학계를 대표하여 한국항공우주학회장인 홍창선 교수는 「항공우주기술 현황과 우리의 방향」이란 제목으로 초청강연을 하였다.

'96 3/4분기 방산간담회 개최

— 기동 물량 보장 및 경영 손실 보장 대책 마련 등 건의



정부 와 방산업체 대표간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방산업체 애로점 및 현안사항을 토의하고, 앞으로의 방산육성 및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한 방산 간담회가 9월 20일 국방회관에서 열렸다.

尹鍾昊 제 2차관보, 安秉吉 방진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업체 측은 지난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의 조치사항에 대한 정부측 설명을 듣고 현안 문제들을 토의했다.

먼저 방산시설 및 인력유지를 위한 정부가동물량 보장 및 경영 손실 보상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비축 및 운영재고 소진을 위한 조달 대책의 강구와 이미 통보된 장기 소요 물량 조정시 사전에 관련업체와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개발업체 자체 기술시험 완료 품목에 대해서는 전력화개발승인 전이라도 관련기관의 기술 및 시험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해 주고, 업체의 기술향상 및 향후 무기체계발전, 수출을 위한 개발사업체 자체개발 승인없이 시설 및 기술 보유 기관과의 용역계약만으로 기술 및 시험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보완을 건의했다.

항우협, 창립 4주년 심포지엄 및 유공자 포상

「항공기산업의 당면과제와 육성전략」 주제로

한국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회장李大遠)는 9월 10일 창립 4주년을 맞이하여 여의도 증권감독원빌딩 대강당에서 「항공기산업의 당면과제와 육성전략」이라는 주제로 산·관·학·연의 관련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항공기산업의 육성발전 전략』에 대해 朴良雨 통상산업부 항공우주공업 과장이 발표하였고, 『부품·소재·엔진 국산화 개발 방안』에 대해 張世卓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장, 金學敏 기계연구원 장원분원장, 李東鎬 서울대학교 교수가 분야별로 각각 주제를 발표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 전에 秋俊錫 통상산업부 차관보의 치사와李大遠 협회 회장의 기념사에 이어 그동안의 성과를 자축하고 항공우주산업계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항공기산업부문, 우주산업



부문, 부품산업부문 및 기타 항공우주산업진흥에 기여한 산·학·연 인사에 대하여 통상산업부 장관 상에 5명, 항공우주협회장상에 10명을 포상하였다.